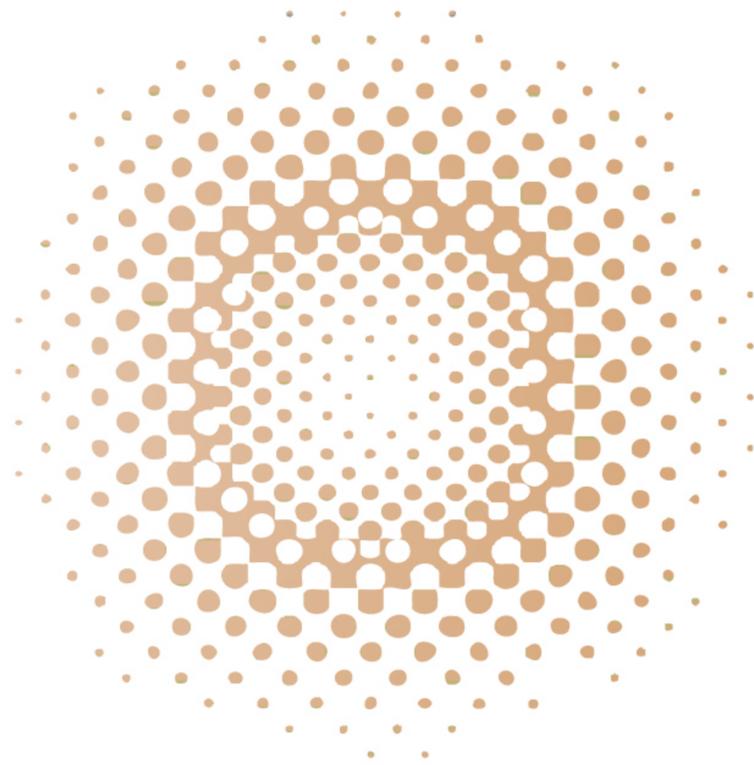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기획세미나

지역복지 거버넌스 모형으로서의
대전시 '복지만두레' 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일 시 : 2013년 2월 5일 (화) 14:00~17:30

장 소 : 대전복지재단 9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 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전복지재단

후 원 : 대전복지재단

초청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와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가 되었고,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화와 공업화의 성공 이면에는 사회부문 간 및 계층 간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자본이 동네시장까지 잠식한 상태에서 소상공인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화 성장’ 속에서 많은 국민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34개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고, 행복지수는 3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경제발전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MIT 애쓰머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로빈슨 교수는 경제적 번영과 빈곤이 결국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합니다. 일찍이 「강한 민주주의」의 저자 바버는 이를 달리 표현해 “빈곤과 불평등의 치유책은 가난한 사람을 시민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앞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이 핵심 공약으로 대두할 만큼 한국 민주주의는 저급한 수준에 있습니다. 2012년 잉글하트와 웰젤 등이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로 계산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52.67점으로 180개 국가 중 53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개혁을 중앙정치인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TV 앞에서 관전하고 품평하는 중앙정치의 개혁이 중요하지만, 정치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우리 자신이 동네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자치를 정치개혁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돕는 대전시의 ‘복지만두레’는 동네자치 진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곤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 정책실험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복지만두레는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네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한 동네자치 프로그램으로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제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대전복지재단과 함께 복지만두레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복지만두레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네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연찬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1. 23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안 성 호

행사 일정

등 록 (13:40~14:00)

개회식 (14:00~14:15)

사 회 : 류 지 만 (대전복지재단)

개회사 : 안 성 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축 사 : 정 진 철 (대전복지재단 대표)

세미나 (14:15~17:30)

사 회 : 안 성 호 (대전대)

발 표 : 곽 현 근 (대전대)

대전시 '복지만두레' 리더십 진단과 향상 방안

배 응 환 (고려대)

대전시 '복지만두레' 거버넌스 진단 및 활성화방안

토 론 : 권 윤 미 (구즉동 복지만두레 담당)

금 흥 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 정 태 (대전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 현 채 (대동 복지만두레 회장)

류 진 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 희 대 (둔산3동 복지만두레 회장)

윤 희 일 (경향신문 기자)

이 근 명 (오정동 복지만두레 회장)

이 근 식 (중구 복지만두레협의회 회장)

이 인 회 (금강일보 기자)

정 기 룡 (대전복지재단 복지만두레팀장)

정 용 길 (판암1동 복지만두레 담당)

찾아오시는 길



연락처

안 성 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011-9825-4880)

곽 현 근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 (010-3423-6071)

김 유 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국장 (010-6694-6608)

이 광 미 대전복지재단 복지만두레 담당자 (042-331-8925)

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48-6

Tel. 02-567-3372

<http://www.kalgs.or.kr>

E-mail: kalgs@chol.com